

동시대 서양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 탐색*

정옥희**

I. 들어가며	IV. 나가며
II. 사회적 전환으로 본 동시대 서양 발레계	참고문헌
III. 동시대 서양 발레단의 핵심가치 및 사회적 전환 분석	Abstract

I. 들어가며

2020년 10월,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는 다섯 명의 흑인 무용수들이 발레단 내에 공공연히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혁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페라극장 총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4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파리오페라극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에 실망했던 이들은 발레단 레퍼토리 및 고용 방식에 내재된 인종차별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파리오페라극장에 막 부임한 알렉산더 네프(A. Neef) 극장장은 즉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진상조사를 수행했고, 이듬해 2월 「파리오페라극장 다양성 보고서 *Rapport Sur La Diversité à l'Opéra National de Paris*」(Ndiaye & Rivière, 2021)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전 레퍼토리의 블랙페이스 분장 관행을 없애고, 피부색에 맞는 포인트슈즈 및 타이즈 착용을 허용하고, 단원 고용 및 승급에 있어 인종차별을 없애는 등 전반적인 개혁을 약속했다(Elzas, 2021.02.10.).

파리오페라발레단 사건은 동시대 발레단들의 변화를 상징한다. 발레단은 흔히 당스데꼴(danse d'école) 테크닉을 바탕으로 고전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시대에 뒤쳐진 단체로 여겨지지만, 오늘날의 발레단들은 고전적인 레퍼토리 외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을 적극 선보일뿐더러 시대적 잣대에 맞춰 예술적이고 제도적인 변혁을 시도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레단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2020년 전후로 발레계의 전통이나 관습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면서 지금까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던 단체들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리

* 본 연구는 2022년 10월 25일 국립발레단 창단 60주년 기념 포럼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100년을 본다'(서울사이버대학교 본관2층 국제회의실)에서 발제한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립발레단 운영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okheejeong1@gmail.com

한 변화는 발레단의 위치, 나아가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파리오페라발레단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내부 구성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파리오페라극장의 변화가 수동적이고 부분적인 수정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리오페라는 2021년 5월에 '나의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오페라(Mon Opéra responsable et engagé)' 캠페인을 시작해 오페라 극장 전반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지 인종차별의 문제 뿐 아니라 '창작, 개방, 보존과 전수'라는 세 가지 가치를 축으로 삼아 발레단을 포함한 극장 전반의 운영 방안을 본질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창작'이 활발한 신작 제작을, '개방'은 보다 넓은 관객 유입을, '보존과 전수'가 문화유산의 전달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혁의 방향이 매우 폭넓고 근본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시대 서양 발레단들의 변화를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라 명명하고, 사회적 전환이 야기된 맥락과 구체적인 방식들, 그리고 여기에 깔린 핵심 가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전환이란 미술이론가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이 현대 예술계의 특징으로 주창한 개념이다. 비숍은 동시대 미술계에서 과정 중심적, 참여중심적 작업이 활성화되고, 작품의 예술성 못지않게 정치적,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지칭했다. 동시대 발레단 역시 공연 뿐 아니라 각종 교육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치적인 올바름을 강조하면서 예술적 수월성이라는 전통적인 목표 너머 윤리적인 과정과 정치적 반향을 중시하는 추세이다. 이는 문제 제기에 대해 마지못한 수정주의적 반응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발레단이 이러한 전환을 동일한 강도나 속도로 겪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전환은 주로 서양, 특히 북미와 서유럽의 주요 발레단을 중심으로 감지되는 현상이다. 마린스키발레단이나 볼쇼이발레단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남미, 아시아의 발레단들은 사회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회적 전환이 순수예술의 제도화 역사 및 서양식 민주주의와 긴밀하게 얽힌 현상이라는 점(Asomatos, 2020)에서 연구자는 모든 발레단이 겪어야 할 통과의례나 진화론적 위계의 잣대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던 발레, 특히 발레단이라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이 앞 다투어 사회적 전환을 이루려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대 발레 현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양 주요 발레단을 선별하여 사회적 전환의 방식과 그 지향점을 분석한다. 선별의 기준은 1) 각국의 대표적인 중규모(무용수 40명 이상) 발레단으로서, 2) 고전부터 창작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3) 공연 외적인 활동이 풍성하며, 4) 윤리적 과정과 가치를 강조하고, 5)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가 충실한 단체로 세웠다. 그 결과 네덜란드국립발레단, 뉴욕시티발레단, 로열발레단, 보스턴발레단,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취리히발레단, 캐나다국립발레단, 파리오페라발레단, 호주발레단의 총 아홉 단체(가나다 순)를 뽑았다. 이들은 긴 역사와 우수 레퍼토리, 무용수의 기량과 다국적성, 활발한 투어, 다양한 사회환원사업, 풍부한 아카이브 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발레단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제각각이며 사업 명칭도, 분류법도, 홈페이지에 기재한 방식도 다르다. 발레단의 사업 영역은 흔히 공연, 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 홍보, 후원회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전환을 부각시키기 어렵다. 본 연구에선 다양한 사업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서 예술성(artisty),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접근성(access), 유산(legacy)을 뽑았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발레단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전환의 논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핵심 가치는 편의상의 구분으로, 특정 사업이 특정 가치에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발레단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발레단이 발표한 보고서나 발간 자료, 신문기사와 서적 등 각종 일·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 II장에선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 III장에선 서양 발레단의 다양한 사업들을 핵심 가치인 예술성, DEI, 접근성, 유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V장에선 동시대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이 가지는 논리와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 단체에 한정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으나, 한국의 발레단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사회적 전환으로 본 동시대 서양 발레계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란 미술비평가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이 2006년에 출간한 짧은 기고문의 제목이다. 1970년대 정치 및 사회과학 분야를 휩쓸었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개념을 환기시키듯, 1990년대 이후의 예술 현상을 지시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최근 수십 년간 예술계에선 공공 예술, 사회 참여 예술, 커뮤니티 기반예술, 실험적 커뮤니티, 열린 작품, 연구기반 혹은 협업 예술, 관계적 예술과 탈관계적 예술, 대화적 미학 등의 개념이 유행했다. 비숍은 이 현상을 사회적 전환이라 명명하며, 이들이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점, 그리고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결합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동시대 미술계에선 예술 활동의 결과물 보다 생산 과정 및 작동 방식이 중요해졌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너머의 사회적 장소를 강조하고, 감상(contemplation)보다 사용(use)을 우선시하며, 작가와 관람자의 협력 및 공동작업을 강조하고, 제작이 이뤄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한다(서동진, 2013, p. 40). 나아가 고전적인 예술 개념이 독자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중시했다면, 1990년대 이후 예술가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가치를 작품의 주제로 다룰 뿐 아니라 작품의 생산 과정에서도 참여, 책임, 협업 등을 강조한다.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접합은 동시대 예술의 트렌드이자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Bishop, 2006).

비숍의 사회적 전환 개념은 미술 중심적이며, 이는 과정에 방점을 둔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비숍의 개념을 발레, 나아가 발레단의 작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오랫동안 일관된 테크닉으로 훈련된 무용수가 모인 집단인 발레단에서는 미술에서처럼 관객 중심적이고 열린 형태의 작품을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레단은 사회적 전환의 두 가지 특징 중 전자(과정 중심성)보다는 후자(정치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비숍은 예술의 사회적 전환에 대해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정치적인 것의 강조에 있어 예술가나 이론가들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다 못해 미적인 것을 대체하려는 경향을 비판했다. 하지만 발레계에서 볼 때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기관인 발레단이 앞 다투어 정치적인 것을 포섭하려는 현상은 분명 의미 있는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발레단이 예술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의 발레단은 예술적 활동의 정치적 올바름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작품의 소재, 인적 구성, 의사결정 방식 등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고 대중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접점을 넓혀간다.

서양 발레계에서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반인종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2000년대 초부터 발레계에서 흑인 및 유색인무용수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정옥희, 2016), 고전 레퍼토리 속 비백인 재현 방식 및 블랙페이스/옐로우페이스 분장에 대한 문제 제기(정옥희, 2021), 나아가 비백인 무용수가 피부색과 다른 타이츠, 소프트슈즈, 포인트 슈즈를 착용하는 관습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Howard, 2020).

발레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문제 제기는 학자, 비평가, 혹은 무용수들이 이끌었으며, 논설 형식 뿐 아니라 행동단체 및 연합체를 조직하는 행동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필 찬(P. Chan)과 조지나 파즈코귄(G. Pazcoguin)이 이끈 ‘옐로우페이스 청원(The Yellowface Pledge)’ 운동에 전 세계 30여 개 발레단이 동참한 것, 그리고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최초의 흑인 수석무용수인 미스티 코플랜드(M. Copeland)가 전면에 나선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플리에(Project Plié)’ 등이 대표적이다. BLM 시위가 활발했던 미국에선 2018년 국제흑인무용인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lacks in Dance)을 필두로 Dance/USA 및 여러 직업발레단이 모여 ‘형평성 프로젝트: 발레에서 흑인 존재감 향상하기’라는 3개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in Dance, 2018). 아메리칸발레시어터, 할렘무용단, 보스턴발레단, 뉴욕시티발레단, 샌프란시스코발레단을 비롯해 미국을 대표하는 21개 발레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미국발레단예술감독연합(Artistic directors Coalition for Ballet in America)을 결성해 직업 무용수 생활을 준비하는 유색인 무용수를 위한 #BalletOpenHouse라는 버추얼 방문프로그램을 런칭했다. 개별 단체 차원을 넘어 단체 간의 토론과 협조를 통해 미국 발레계에 인종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반인종주의의 행동주의가 서양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에 기폭제가 되었다면, 이들 단체가 처한 재정적, 문화적 위기 역시 발레단의 사업 영역 및 방향에 있어 수정을 야기했다. 발레가 서양 사회에서 고급예술 및 순수예술로서 누리왔던 위상이 흐려지고 전통적인 문화기관인 오페라 극장을 방문하는 관객층이 노쇠하면서 서양의 발레 관객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단지 관객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 뿐 아니라 발레가 사회적으로 지니는 정당성이 위태로움을 의미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 기관들이 관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파트너십, 관객 참여 증가, 관객을 구체적으로 구획화하기, 가격 인하, 지역 삶과의 연계 등의 전략을 추구하듯(Bamford and Wimmer, 2012, pp.4-5), 발레단 역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관이 되고자 변화하고 있다.

III. 동시대 서양 발레단의 핵심가치별 사회적 전환 분석

1. 예술성(Artistry)

가. 다양하고 우수한 레퍼토리 보유 및 신작 제작

동시대 서양 발레단들은 고전부터 컨템퍼러리 작품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내세운다. 정통성

있고 수준 높은 정전(正傳) 레퍼토리를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대예술로서 유효한 신작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발레단으로선 검증된 작품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신작 제작이 더 어렵다. 예술적 감식안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불확실한 결과를 감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초연작은 발레단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주요 잣대가 된다.

로열발레단은 설립자 안무가인 프레데릭 애쉬튼(F. Ashton)과 대표 안무가인 케네스 맥밀란(K. MacMillan)의 작품부터 현재의 상주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W. McGregor)와 협력예술가 크리스토퍼 휠튼(C. Wheeldon)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는 설립 이후 조지 발란신(G. Balanchine), 아그네스 드밀(A. De Mille), 트와일라 타프(T. Tharp)에서부터 휠튼, 리암 스칼렛(L. Scarlet), 알렉세이 라트만스키(A. Ratmansky)등 주요 안무가의 세계초연작을 꾸준히 제작했다. 작품 아카이브에 세계초연, 미국초연, 아메리칸발레시어터초연 여부를 밝히고 있는데, 상당수가 세계초연작이라는 점을 자랑스레 내세운다.

전통을 강조하는 파리 오페라발레단에서도 알렉산더 에크만(A. Ekman), 제롬 벨(J. Bel), 시디 라르비 체르카위(C. L. Cherkaoui), 크리스탈 파이트(C. Pite), 샤론 에얄(S. Eyal)과 가이 베하르(G. Behar)등 컨템퍼러리댄스 안무가를 적극 초청하여 동시대적 작품을 의뢰한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은 설립 초기인 1960년대에 50편의 세계초연작을 포함하여 총 112편의 신작을 선보였고, 2010년대에 136편의 세계초연작을 포함하여 총 196편의 신작을 선보였다. 1년에 약 20편의 신작을 발표한 셈이다. 「호두까기 인형과 쥐왕, *The Nutcracker and the Mouse King*」이나 「백조의 호수」 같은 고전 레퍼토리를 꾸준히 공연하면서도 신작 제작을 당연시한다.

캐나다국립발레단은 애쉬튼, 발란신, 윌리엄 포사이드(W. Forsythe), 존 뉴마이어(J. Neumeier)등의 유명 발레 안무가나 마리 쇼이나르(M. Chouinard), 제임스 쿠델카(J. Kudelka) 등의 캐나다 안무가까지 약 300편의 신작을 선보였다. 2022-2023년 시즌에는 웨인 맥그리거가 캐나다의 유명 소설가 마가렛 애트우드(M. Atwood)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3부작 「매다담, *MADDADDAM*」을 세계 초연한다.

의미 있는 신작을 제작하는 것은 발레단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전략이기도 하다. 영국국립발레단은 2012년 타마라 로호(T. Rojo) 예술감독의 부임 후 아크람 칸(A. Khan)의 「지젤」(2017)과 「크리처, *Creature*」(2022), 여성 안무가의 작품 3편을 선보이는 트리플빌 「그녀가 말했다, *She Said*」(2016)과 「그녀가 버텼다, *She Persisted*」(2019) 등 과감한 공연 기획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계층, 젠더, 정상성 등의 사회적 주제를 발레단의 예술 활동에 중요한 키워드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단체의 위상을 높였다.

나. 안무가 육성 및 예술적 탐색

좋은 안무가를 육성하는 것은 발레단의 생존 뿐 아니라 발레계 전체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발레단들은 단원들에게 창작 기회를 주는 발레단이 많으며,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을 활성화한다.¹⁾

1) 해외 발레단 및 발레학교의 안무가 육성 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정옥희(2022), 생애 주기로 본 발레 안무가 육성 패러다임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2), 199-224.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은 2017년부터 ‘신진안무가(Young Creative Associate)’를 선발하여 무용수와 연습실, 공연 기회 등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해 ‘안무 아카데미’를 설립해 젊은 안무가들에게 무용단 및 주니어 컴퍼니 무용수들과 3주간 작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열발레단은 단원이 부담 없이 창작을 시도해보는 ‘초안(Draft Works)’ 공연을 마련하는 한편, ‘떠오르는 안무가(Emerging Choreographer)’로 선발된 안무가에게 2년간 발레단에서 무용수들과 작업하며 발레단의 상주 안무가인 웨인 맥그리저 및 여러 협력 안무가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뉴욕시티발레단은 1992년부터 신인 안무가를 발굴하는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2000년에는 안무가를 육성하기 위한 ‘뉴욕안무인스티튜트(New York Choreographic Institute)’를 설립했다.

나아가 발레 너머 타 장르와 협업하거나 새로운 예술 형식을 탐색하는 것은 정상급 무용단으로서의 역할이다. 보스턴발레단에선 멀티미디어 작업을 모은 ‘ÜNI’라는 댄스미디어 플랫폼을 개설하여 실험을 장려한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에서도 안무 워크숍 ‘뉴 무브(New Moves)’를 진행하고 그 중 일부를 영상으로 제작한 ‘뉴 무브 온라인(New Moves Online)’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 DEI

가. 조직 개편 및 레퍼토리 변화

201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 인권 침해가 심화 되면서 인간과 공동체에 중점을 둔 사회적 가치²⁾가 중요해졌다. 서양에선 2020년 전후로 #me too와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혹은 EDI)³⁾이 최우선 가치로 떠올랐다. 미디어계, 언론계, 게임업계 및 공연계에선 잇달아 DEI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며 경제적 효율성이나 예술적 수월성 위주의 업계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는 소위 ‘고급예술’ 장르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에 소극적이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양 발레단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보스턴발레단은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발레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인 인종차별 및 엘리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발레단은 2021년부터 보다 포용적인 업무 환경 만들기, 인종적으로 다양한 구성원 갖추기, 그리고 예술적 정체성과 레퍼토리의 적합성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다. 보스턴발레단은 문화역량 및 형평성 연합(Cultural Competence and Equity Coalition), 미국발레예술감독 연합(Artistic Directors Coalition for Ballet in America), 호두까기 인형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the Nutcracker), 흑인 무용수 지망생을 위한 오픈하우스 시리즈(Open House Series for Aspiring Black Dancers), 아시아인 혐오금지(Stopasianhate), 우리의 미래 색칠하기 멘토십 프로그램(Color Our Future Mentorship

2)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요소로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이 포함되는데,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례집**, p.4.

3) 형평성은 제도나 시스템에 의한 절차 및 분배에 있어 정의, 공평,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양성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취향, 연령, 장애 등에 있어 차이의 공존을 말하며, 포용성은 사회에서 배제된 다양한 이들이 조직 내에서 이해와 존중을 받으며 소속감을 느끼도록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rogram), DEI 운영위원회(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Steering Committee), 형평성 프로젝트(The Equity Project), 여성안무가 이니셔티브(Choreographer Initiative), 모두를 위한 무용교육(Dance Education for All) 등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모두 춤계 내부와 외부의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에선 여러 해 전 비백인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플리에’를 개설한 후 이를 토대로 2020년 ‘ABT RISE’라는 모토를 내걸었다. ‘대표성과 포용성이 수월성을 가져온다(Representation and Inclusion Sustain Excellence)’는 뜻이다. 발레단은 ‘ABT RISE’ 모토 하에 소외계층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획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 안무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ABT 여성 움직임(ABT Women’s Movement)’을 운영하고, 흑인, 선주민, 유색인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관점을 정책에 녹여내며, 연계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행정, 공연, 교육 등 전 분야에서 EDI의 가치를 녹여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캐나다국립발레단은 EDI를 위한 TF팀을 꾸려 강하게 추진하며, 전 구성원을 상대로 반편견 및 반인종 차별 교육을 실시한다. 온타리오주 문화다원주의예술운동(Cultural Pluralism in the Arts Movement Ontario) 및 흑인 발레무용수 가시화 및 기념 단체인 MoBBallet.org와 협업한다. 호주발레단은 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비영리기관인 ‘호주다양성예술기관(Diversity Arts Australia, DARTS)’과 협업하여 다양성과 포용성 계획(Diversity and Inclusion Plan)’을 마련하고 있다.

서두에 소개했듯 DEI에 있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고 평가받던 파리오페라극장은 2021년 알렉산더 네프 극장장의 부임 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1년에 발간한 66쪽 분량의 다양성 보고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담당관’을 고용하고, 고전 레퍼토리에서 블랙페이스나 옐로우페이스 분장을 금지하고, 발레단 및 발레학교에서 비백인 무용수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Ndiaye & Rivière, 2021). 2015년 당시 예술감독이던 벤자맹 밀피에(B. Millepied)가 블랙페이스를 금지했다가 역풍을 맞고 해고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극장 전체의 운영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 다양성은 반인종주의 운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세계 발레단들이 추구하는 DEI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조직 내 인적 구성원의 인종/국적 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는 15개국 출신의 무용수로 이루어졌음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로열오페라극장은 예술가 뿐 아니라 무대 및 행정인력, 자문위원, 프리랜서 등 전체 조직에서 다양한 인재 유입하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DEI의 실천은 단순히 인적 개편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크린의 포용은 우리 내부 커뮤니티의 포용에서 시작된다”(Netflix, 2021)고 말하는 넷플릭스의 포용성 보고서처럼, 조직 구성원의 포용성은 곧 콘텐츠의 포용성으로 연결된다. 젠더, 인종, 계층 등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확보될수록 작품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진다. 베를린슈타츠발레단의 첫 흑인여성무용수인 클로에 로페스 고메즈가 피부 분칠을 거절했다가 인종차별 당한 것에 소송 제기하여 보상금을 받고 발레단이 다양성 워크숍을 시작한 것(장지영, 2021), 로열발레단과 뉴욕시티발레단이 단원들의 다양한 외모를 존중해 공연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피부색에 맞는 의상을 입도록 허용한 것(Hernández, 2022),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다섯 명의 흑인 무용수들이 인종주의 문제를 제기하여 블랙페이스를 비롯한 인종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게 이끈 것(Marshall, 2021) 등의 사례는 인적 다양성이 곧 작품 속 다양성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DEI는 단체의 인적구성 및 캐스팅을 넘어 의사결정 구조, 작품의 선택 및 재현 방식 등에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위 가치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DEI은 인종 문제에서 가장 강력하나 국적, 젠더, 선주민, 장애, 성적 지향성이나 계층 등의 요인도 작용한다. 캐나다국립발레단은 캐나다 선주민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를 내부 구성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녹여낸 ‘점심시간 학습(Lunch and Learn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스턴발레단과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지역 선주민에 대한 강압적 정복의 역사를 인정한다. 호주 발레단은 2022년 선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주민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화해행동계획(Reconciliation Action Plan, RAP)을 시작했다.

섹슈얼리티 역시 DEI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는 2021년 남성 무용수 두 명의 파드되 작품인 「접촉, *Touché*」(안무: 크리스토퍼 러드(C. Rudd))의 초연을 기념하여 LGBTQIA+ 프라이드 나이트 행사를 진행했으며, 발레단 초창기 역사부터 존재했던 LGBTQIA+ 문화를 가시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로열오페라극장에서선 발레 및 오페라계에 공헌한 LGBTQ+ 성소수자를 기리는 ‘프라이드 오브 ROH(Pride of the ROH)’ 극장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진시킨 바 있다. 앞으로 젠더-플루이드 공연과 퀴어 테마 프로덕션도 탐구할 계획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선 제외되었지만 스코틀랜드발레단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의 다양성을 탐색하는 ‘나여서 안전해(Safe to Be M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10-23세를 대상으로 하는 ‘나여서 안전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중요한 점은 DEI가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복지나 수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월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된다는 것이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행정감독인 카라 메도프 바넷(K. M. Barnett)은 “미국의 국립발레단으로서 우리의 수월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다양한 개인과 관점을 포용함에 달렸다”면서 “모든 의사결정과 계획에서 EDI는 축이 될 것이다”(ABT, 2020)라고 말했다. 예술적 수월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비례적 관계로 보는 통념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가 곧 예술적 수월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파리오페라의 보고서에서도 부속 발레학교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다양성 기준에 맞춰 재능이 부족한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Agence France-Press in Paris, 2021). 로열발레학교 역시 유럽 각지 뿐 아니라 미국과 브라질에서 오디션을 열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한국에서도 첫 오디션을 진행했다(로열발레스쿨코리아 홈페이지, 2022). 국제 오디션이 발레단 차원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무용수의 다양성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다국적 무용수가 국제적 위상과 패권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엔 사회적 올바름과 예술적 수월성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환영받는 것이다.

한편 발레단들은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 외에도 지속가능성과 인권 등과 같은 가치를 포용한다. 로열오페라극장에서선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며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무용수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코틀랜드발레단, 캐나다국립발레단, 뉴욕시티발레단 등에서는 친밀성 감독(intimacy director)을 고용하는 추세이다(Cappelle, 2022). 신체접촉이 많은 발레의 특성상 무용수들이 불편함을 느낄 상황이 잦은데다, 「메이

어링, Mayerling] 처럼 성적 행위나 폭력 요소가 강한 작품에서 무용수들이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부담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교육(Education)

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새로운 관객을 유입시키고 관객 규모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발레단들은 발레 동작을 배우고, 주요 레퍼토리를 감상하고, 창작/안무를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연령별, 조건별, 기간별로 다양하게 마련하며, 발레단 스튜디오나 극장, 혹은 지역 내 커뮤니티 및 학교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발레단이 운영하는 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발레단의 전·현직 단원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다.

많은 발레단이 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미래 관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 너머의 사회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발레단의 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발레라는 장르를 대중화하고, 예술 교육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발레를 사회적으로 유효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한다.

로열오페라극장에서선 학교 교육, 극장 교육, 교사 연수 등 방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무용교육프로그램인 ‘창작&무용(Create & Dance)’와 연령제한 없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인 ‘에브리바디 댄스!(Everybody Dance!)’가 대표적이다. 차시와 난이도에 따라 여러 버전의 수업지도안 및 교육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5분 단위로 세세하게 제공하고, 발레/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교사가 춤을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및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캐나다 국립발레단은 청소년 대상 공연/워크숍/대화인 ‘유 댄스(YOU Dance),’ 학교 방문 공연 프로그램인 ‘댄스 어바웃(Dance About),’ 학생 마티니 공연 등을 운영하며, 아메리칸발레시어터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인 ‘ABT키즈 스쿨(ABTKids: Schools)’을 비롯하여 뉴욕 지역 학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스턴발레단은 1991년부터 다양한 연령과 구성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인 ‘시티댄스(Citydance)’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발레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은 폴더극단(Poldertheater)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극과 춤을 결합하여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0분 3회, 혹은 100분 2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숍과 공연, 토론을 연결하여 삶 속에서 춤과 연극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댄스필름교육단체인 ‘댄스 인 스쿨(Dans in School)과 공동개발한 ‘균형&불균형(Balance & Off Balance)’은 균형을 주제로 단편 댄스필름을 제작하는 학교 대상 프로그램이다. 4-6명의 소그룹 학생들이 3시간 동안 움직임의 탐색하고 촬영, 편집한다.

뉴욕시티발레단에선 1-5학년 학생들을 위한 춤+글쓰기 융합 교육프로그램인 ‘발레 이야기(Ballet Tales)’를 운영한다. 8차시 워크숍에서 움직임, 텍스트, 음악 등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호주발레단의 ‘STEAM 춤(STEAM dance)’ 프로그램은 과학 STEAM과목과 춤을 접목했다. 낮과 밤, 힘, 열 전달, 자력(磁力) 등을 주제로 한 5차시 수업을 개발하였으며, 수업 영상 및 활동 자료를 무상제공하고 있다.

4. 접근성(Access)

최근 극장의 위계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지면서 극장들은 기존 관객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 노력한다. 교육 뿐 아니라 공연에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발레단들 역시 정규 공연에 더하여 ‘느슨한 공연(relaxed performance)’ 회차를 마련한다. 엄격한 극장 관람 예절을 지키기 어려운 이들과 가족 관객이 주눅 들지 않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열오페라하우스는 홈페이지에 휠체어 접근가능성, 음성해설 공연, 자막제공 공연, 수어해설 공연, 터치투어 등 각 공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관람객이나 지적 장애인을 위한 보조문서자료 및 영상물을 만드는 곳도 많다. 극장에 오는 길부터 극장의 내부구조와 관람방식 등을 친절히 안내한다. 과도한 자극으로 힘들면 숨을 수 있는 곳도 마련해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발레의 사회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일이거나 미래의 관객층을 넓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편 접근성은 공연 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적용된다. 발레단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소수자 및 약자를 품으려 노력한다. 로열발레단의 ‘춤 출 기회(Chance to Dance)’는 소외계층 초등학생에게 발레를 바탕으로 창작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발레 만들기(Make a Ballet)’는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창작 및 공연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캐나다국립발레단의 ‘마법 나누기(Share the Magic)’는 소외계층에게 발레 공연 감상의 기회를 준다.

뉴욕시티발레단의 ‘접근성 프로그램(Access Programs)’은 다양한 연령과 능력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스턴발레단의 ‘어댑티브 댄스(Adaptive Dance)’는 다운증후군, 자폐스펙트럼을 포함해 다양한 능력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를 가르칠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도 연계된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은 특수 교육 및 PABO 대학의 학생 자문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한 ‘발레박스(Balletbox)’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8차시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으며, 워크숍 외에도 정규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5. 유산 (Legacy)

가. 기록, 보존, 아카이브 투자

유산은 발레단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예술성이나 DEI, 교육적 가치, 접근성만큼 중요하다. 매 공연에서 영상기록을 만들고, 의상과 장치,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을 보존하는 것은 대부분의 발레단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발레단과 레퍼토리, 인물에 대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집/보존/정리하고, 공연 및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카이브, 전시, 이벤트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환원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양에서 역사가 긴 오페라 극장에 속한 발레단들은 자료관 및 아카이브를 잘 갖추고 있다. 마린스키 극장과 볼쇼이 극장의 박물관, 라스칼라극장박물관, 파리오페라박물관, 로열오페라극장의 아카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발레단이 대규모 박물관과 연계된 것은 아니고 꼭 거창한 사업을 해야만 유산인 것도 아니다. 발레단 차원에서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거나 레퍼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것, 심지어 홈페이지에 발레단의 역사에 대해 꼼꼼히 게재하는 것 모두 유산을 기리는 작업이다. 유산에 대해 가장 진지한 단체 중 하나인 뉴욕시티발레단은 홈페이지에 무용단의 주요 인물인 링컨 컬

스타인, 조지 발란신, 제롬 로빈스 뿐 아니라 창단 이래 모든 단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들의 공헌을 기린다.

캐나다국립발레단은 1975년부터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 언론기사, 포스터, 사진, 비디오, 의상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에릭 브룬 도서관 및 아카이브 비디오 컬렉션(the Erik Bruhn Library and Archive Video Collection)’을 운영하며 대중에 공개한다. 또한 일반인 관객들에게서 발레단과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으며 아카이브를 채우는데 지속적으로 공들인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다(Your Story is Our History)’라는 코너에서 보듯 창작자 뿐 아니라 수용자까지, 물품 자료 뿐 아니라 구술자료까지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은 홈페이지에 발레단의 역사를 소개하는 한편, 올해 60주년을 맞아 역사적 흐름과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타임라인 페이지를 신설했다. 설립자인 한스 판 마넨(H. V. Manen)의 공헌을 기리는 한스 판 마넨 재단과 함께 그의 레퍼토리에 관련된 정보, 사진, 영상, 공연 및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꼼꼼하게 소개한다.

나. 연구 및 지식 확산 활동

발레단의 사업에서 연구 활동은 공연이나 교육 활동에 비해 덜 가시적이지만 중요성은 높다. 이는 발레단이 그저 공연단(troupe)에 그치지 않고 문화기관(cultural institution)임을 증명한다. 동시대 발레단들은 공연 못지않게 공연을 둘러싼 지식을 축적하고, 연구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매진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발레단의 역사와 안무가, 무용수, 예술적/기술적 스태프, 프로덕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공연 프로그램밖 외에도 뉴스레터, 팟캐스트, 서적 등을 통해 발레단과 발레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공연영상, 다큐멘터리, 비하인드 영상 등을 무료/유료로 공개하는 기관들도 여럿이다. 개별 단체보다는 극장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로열오페라하우스, 취리히오페라하우스, 네덜란드국립오페라극장(National Opera & Ballet)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레에 대한 지식은 문서, 영상, 온라인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그 중에서도 영상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육 자료이다. 발레단들은 홈페이지에 영상을 삽입하여 발레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취리히발레단은 관객이 알고 싶지만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영상으로 제작한 “당신이 항상(What you always...)”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뉴욕시티 발레단은 무용수가 직접 내레이션 하는 ‘춤의 해부학(Anatomy of a Dance)’과 ‘레퍼토리 안에(Inside the Repertory)’ 시리즈를 올린다. 전자가 무용수의 개인적인 해석과 관점에 좀 더 집중한다면, 후자는 레퍼토리의 특징에 집중한다. 둘 다 무용수가 직접 춤에 대해 말함으로써 무용수를 적극적인 해석자이자 의미 창조자로서 위치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영상물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서 자료와 결합되어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수업계획안을 구성하기도 한다. 캐나다국립발레단은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발레(Ballet Fun for Kids)’을 위한 2, 5, 10차시의 강의계획안을 마련해 5분단위로 수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심 있는 교사가 수업 자료 및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호주발레단은 온라인 교육자료 페이지인 ‘에듀 허브(EduHub)’를 따로 마련해 초중등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자료 및 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발레단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안무, 디자인, 음악, 줄거리, 과학 등 여러 요소로 접근하

며 발레단 스태프의 생생한 작업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간 및 연간 교육 자료인 ‘ABT 키즈(ABT Kids)’를 개발했다. 춤과 발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발레단 레퍼토리를 둘러싼 풍부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영상 및 브로셔로 제공한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배부하는 것은 해당 발레단 뿐 아니라 발레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 관객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발레단들도 있다. 뉴욕시티발레단은 ‘시티발레 팟캐스트(City Ballet the Podcast)’를 운영한다. 무용단 솔리스트들이 발레단의 삶을 소개하는 ‘송진 상자(the Rosin Box)’, 스타 무용수 출신으로 부예술감독인 웬디 헬란이 최신 작품을 소개하는 ‘뉴 컴비네이션’, 발레단 출신의 무용교육자가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춤 듣기(Hear the Dance)’, 그리고 발레단의 음악감독이 음악적 관점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음악 보기(See the Music)’ 등의 코너를 운영한다. ‘춤 듣고 음악을 보라’는 구절이 발란신의 모토였다는 점에서 발레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80여 편이 방송되었으며, 발레단 내부 전문가들이 단체의 역사와 레퍼토리, 최신작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성 팬들을 만족시킨다. 취리히발레단이 속한 취리히오페라하우스는 ‘막간(Zwischenspiel)’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한다. 오페라하우스 잡지와 함께 발간되며, 공연 작품에 대해 예술가 및 제작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파리오페라 발레단 역시 팟캐스트를 운영한다.

교육자료는 발레단의 공연 활동 및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 발레단들은 발레단의 역사나 일상에 대해 소개하는 것 외에 특정 레퍼토리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취리히발레단은 각 시즌에 공연되는 작품을 주제로 한 교육자료집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안나 카레니나」 공연과 연계한 교육자료는 톨스토이의 원작에 대한 소개부터 안무가의 의도, 의상 디자인, 발레 작품에 대한 기록법, 작품을 소재로 한 창작무용 수업 자료, 그 외 참고자료까지 알차게 담고 있다. 뉴욕시티발레단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의 주제, 안무, 음악 등을 활용해 창작, 협업, 비평적 반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호두까기 인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

보스턴발레단에서는 교육 및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팀에서 춤에서 인종적 평등과 정의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툴박스를 개발했으며, 심지어 DEI 관련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러한 연구적 측면은 발레단의 공연과 각종 사업을 내실화할 뿐 아니라, 사업 실천 전반에 진정성을 더해준다.

종합하면 <표 1>은 지금까지 논의한 동시대 서양 주요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을 반영한 활동들을 핵심가치별로 정리한 것이다.⁴⁾

4) 발레단의 핵심 가치 중 전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술성은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에 표에서 제외했다. 각 단체의 프로그램명은 고유명사이기에 원어표기 했다.

〈표 1〉 동시대 서양 발레단의 활동에 나타난 사회적 전환

기관명	핵심가치	구체적 활동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네덜란드)	DEI	평등성 미션 ‘다양성 기념하기-DNB의 밤(공연)’
	교육적 가치	학생 단체 공연 학교 춤의 날 워크숍(1-8학년 그룹 춤 창작) ‘Ballet met je klas’(7,8학년 대상 발레 소개 학교 방문 프로그램) ‘Dans 101’(6-8학년 대상 안무 워크숍) ‘Inspiratiedag!’(8-11세 어린이 대상, 무용 소개 이벤트) 동화발레 만들기 워크숍 ‘Balance & Off Balance’(소규모 학생 댄스필름 제작 프로그램)
	접근성	‘Balletbox’(6-8 회차의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
	유산	보존 발레단 역사 타임라인 한스 판 마넨(H. V. Manen) 타임라인 확산 ‘Jump’(유아 교육 프로그램 자료)
뉴욕시티발레단 (미국)	DEI	DEI 미션 반인종차별주의 선언
	교육적 가치	‘In Motion Workshops’(8-12세 아동 위한 레퍼토리 경험 프로그램) ‘Inside NYCB’(발레단 및 레퍼토리에 대한 소개 공연 및 토크) ‘Ballet Tales’(춤과 글쓰기 융합 8차시 워크숍 프로그램) ‘Project Ballet’(3-5학년 위한 10차시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
	접근성	자폐친화적 접근성 워크숍 어린이를 위한 접근성 워크숍(지체장애 및 움직임장애 어린이와 가족 위한 프로그램) 10대 및 성인 위한 접근성 프로그램(75분 워크숍) 지역 기관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유산	보존 NYCB Archives(의상, 악보, 무대디자인, 사진, 서류 등 보존, 제공) 홈페이지에 주요 안무가, 단원 소개 확산 호두까기 인형 프로젝트(레퍼토리 이해 자료) ‘City Ballet the Podcast’(발레단의 역사, 레퍼토리, 무용수에 대해 소개하는 팟캐스트 운영) ‘To the Pointe’(최신 뉴스, 인터뷰 소개)
로열발레단 (영국)	DEI	DEI 미션
	교육적 가치	‘Create & Dance’(학생 창작 교육 프로그램) ‘Everybody Dance!’(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사 교육 프로그램 학생 마티니 공연 ‘Royal Opera House Bridge’(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Chance to Dance’(소외계층 창작) 접근성 공연(accessible performance) - 감각 적응 공연(sensory adapted performance) - 느슨한 공연(relaxed performance) - 음성해설 공연 -BSL(브리티쉬 수화) 해설 공연 장애 사회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준수
	유산	보존 극장 아카이브 운영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 ‘Insight’(오픈 리허설, 토크, 공연 해설 등의 프로그램)

보스턴발레단 (미국)	DEI	DEI 미션 'ECI Toolbox'(인증적 평등과 정의 교육을 위한 자료) DEI 추천목록 제공 선주민 문화 인정 보스턴발레학교에서 피부색에 맞는 슈즈, 타이즈 착용 허용	
	교육적 가치	어린이 및 성인 발레 프로그램 'ECI on Location'(방문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ChoreographHER Initiative'(여성 안무가 발굴 프로젝트) 'Adaptive Dance'(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Adaptive Dance Teacher Training'(장애 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 'Citydance'(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무용 경험 프로그램)	
	유산	보존	'Behind the Scene'(시대별 역사 서술)
확산		교육 및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팀 운영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미국)	DEI	'ABT RISE'(DEI 미션) 선주민 문화 인정 'ABT Pride Nights'(LGBTQ 이벤트) 'ABT Women's Movement'(여성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교육적 가치	'ABTKids: Schools'(학교 방문 프로그램) 'ABTKids Daily'(발레단 및 발레에 대한 다양한 교육 영상 제공)	
	접근성	Make a Ballet(소외계층 초등학교생 창작/제작) 'Project Plié'(소외계층 어린이 방문 교육)	
	유산	보존	레퍼토리 아카이브
확산		'ABT Kids' 일간/연간 교육자료 발레 용어 온라인 사전 'SideBarre'(소식지)	
취리히발레단 (스위스)	DEI	·	
	교육적 가치	가족 워크숍, 어린이 워크숍	
	접근성	·	
	유산	보존	극장 아카이브 비디오 온 디맨드(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		'What you always...'(발레 정보 영상) 'Zwischenspiel'(취리히오페라하우스 팟캐스트) 시즌 레퍼토리 연계 교육자료집 발간	
캐나다 국립발레단 (캐나다)	DEI	EDI 미션 EDI를 위한 TF 결성 'Lunch and Learns'	
	교육적 가치	'YOU Dance'(학생 교육 프로그램) 'Dance About'(창작 프로그램) 학생 마티니 공연	
	접근성	'Share the Magic'(소외계층 감상)	
	유산	보존	무용단 아카이브 'The Erik Bruhn Library and Archive Video Collection', 'Your Story is Our History'(구술자료 수집)
확산		'Ballet Fun for Kids'(어린이 교육 강의계획안)	

파리오페라 발레단 (프랑스)	DEI	다양성 보고서(2021) 발간 다양성과 포용성 담당관 고용 'OUI'(난민과 협력하는 안무 워크숍)	
	교육적 가치	'Opera-University'(고등교육 학생을 위한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L'Opéra pour moi auss'(사르셀 지역 주민 위한 교육 프로그램) 'Pass' familles'(가족 할인제도) 'Ma première fois à l'Opéra'(첫 방문 관객 위한 할인 제도)	
	유산	보존	극장 아카이브 운영
확산		'L'Opéra chez soi'(온라인 스트리밍) 팟캐스트 운영	
호주발레단 (호주)	DEI	다양성 및 포용성 계획(발표 예정) 다양성 모니터링 선주민 문화 인정: '화해행동계획'	
	교육적 가치	학교/지역 공연용 레퍼토리 개발('포미와 고바 이야기 <i>The Story of Pomi and Gobbai</i> , '로미오와 줄리엣') 'STEAMDANCE'(STEAM과목과 춤 융합 교육프로그램) 'Dancing Story'(3-5세 다양한 접근성 아동 위한 4차시 교육 프로그램) 'Behind Ballet Blog'(발레단 소식 블로그) 'Step Inside'(토크, 오픈 클래스, 극장 투어, 리허설 관람, 관객과의 대화)	
	접근성	'Dance for Seniors'(노인 교육 프로그램)	
	유산	보존	.
확산		EduHub(온라인 교육자료 모음)	

IV. 나가며

본 연구는 동시대 서양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을 탐색하고자 발레단 아홉 단체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활동들을 핵심가치별로 분석했다. 발레단들은 단체의 역사와 구성원, 지향점과 사업이 다양하고, 명칭이나 분류법도 다양하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를 분석해 볼 때 동시대 발레단들은 발레단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예술성 외에 DEI(다양성, 포용성, 평등성), 교육적 가치, 접근성, 그리고 유산이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 이는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융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을 실천하는 활동은 매우 폭넓다. 좁게는 반인종차별주의 행동주의로부터 넓게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아우른다. 이는 공연단체에서 '공연' 못지않게 '교육'이나 '연구' 등의 공연 외적인 사업이 중요해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윤리성과 같은 예술 외적인 가치가 예술성 같은 예술 내적인 가치만큼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발레라는 장르에 중요한 문제이다.

발레는 서양극장예술춤의 대표적인 장르로서 근립해오면서 엘리트주의, 인종주의, 차별주의의 역사 위에서 성장했다. 오늘날 위계나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장르의 관습적인 규범을 고수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⁵⁾ 시대에 유명인이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듯, 발레단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적극적인 보이콧(boyco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나 개인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서양 발레단으로서는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서양에서 발레는 상대적으로 낡은 예술 장르로서 젊은 세대 관객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래 세대 관객을 개발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동시대적인 가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발레라는 콘텐츠를 새롭게 가공하고 활용하는 한편, 지금까지 외면해 온 주체들을 포용하면서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동시대 발레단들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들은 각 단체가, 나아가 발레라는 예술 장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발레가 동시대적 유효성을 지니기 위해서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을 적극 수정하고, 삶에 다가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뉴욕시티발레단의 미션에서 엿볼 수 있듯, 동시대 발레단은 “영감을 주고 봉사할 의무가 있다(We have a duty to inspire and serve)” (뉴욕시티발레단 홈페이지).

그렇다면 서구 발레단의 사회적 전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국 발레계에서도 사회적 전환을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해설이 있는 발레’나 ‘찾아가는 발레교실’과 같은 간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소외계층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라바야데르」 블랙페이스 분장을 없애고 장애인 비하 논란이 제기된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일부 장면을 수정하기도 했다.⁶⁾

하지만 국립발레단을 포함한 국내 발레단들의 활동에서 사회적 전환이 그리 가시적이지 않다. DEI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변혁을 피하는 경우도 드물고, 접근성이나 유산을 강조하는 사업도 드물다. 물론 이는 문화적 맥락의 간극, 특히 서구권에 비해 인종적 다양성의 역사가 짧고 소수자가 덜 가시화 된 사회라는 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 발레계가 세계 발레계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술적 수준이 향상된 만큼 영향력도, 이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감도 커졌다. 후발주자로서 고전 레퍼토리를 배우기에 급급한 시절은 지났다. K-pop 이 세계 대중문화계의 변방에서 주류로 편입되면서 정치적인 책임이 중요해졌듯, 한국 발레계 역시 미적인 것이 이미 정치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전환을 적극 성찰해야 한다.

5)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주로 저명인을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고발하고 거기에 비판이 쇄도함으로써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드는 소셜 미디어 상의 현상이나 운동이다. 위키피디아 참고.

6) 서구 정상급 발레단과 국립발레단의 구체적인 활동과 핵심가치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발표문을 참조할 것. 정옥희(2022, 10, 25.),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립발레단 운영강화 방안, 국립발레단 창단 60주년 기념포럼 자료집, 24-43.

■ 참고문헌

- 김정희(2012). **국립발레단 50년사**. 국립발레단.
- 정옥희(2016). 흑인 발레리나의 소외 원인과 변화에 대한 논리적 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4(3), 157-179.
- 정옥희(2021). 발레계의 블랙페이스/옐로우페이스 논쟁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2(2), 81-102.
- 정옥희(2022). 생애주기로 본 발레 안무가 육성 패러다임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2), 199-224.
- Asomatos, Christos(2020). **The Social Turn: Artistic Legitimacy and the Origins of Politicisation**.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Cultural and Creative Arts, College of Arts, University of Glasgow.
- Bishop, Claire(2006). The Social Turn: Collaboration and Its Discontents. **Artforum**, 78-183.
-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n-national-ballet.kr/ko>, 2022. 10. 01.>.
- 김채현(2018. 9.). “국립발레단 KNB 무브먼트: 줄타동기의 가능성을 묻다”. **춤웹진**. <<https://url.kr/cnta54>, 2022. 10. 01.>.
- 네덜란드국립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operaballet.nl/>, 2022. 10. 01.>.
- 라스칼라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teatroallascala.org/en>, 2022. 10. 01.>.
- 로열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roh.org.uk/>, 2022. 10. 01.>.
- 로열발레스쿨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royalballetschoolkorea.co.kr/blank-16>, 2022. 10. 01.>.
- 베를린슈타츠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staatsballett-berlin.de/>, 2022. 10. 01.>.
- 서동진(2013). 사회적 전환 이후의 미술—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불가능한 조우. **noon**, 5,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22-39.
- 아메리칸발레시어터 홈페이지 <<https://www.abt.org/>, 2022. 10. 01.>.
- 잉글리쉬내셔널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ballet.org.uk/>, 2022. 10. 01.>.
- 장지영(2021. 5. 20.). “발레 '말괄량이 길들이기' 장애인 희화화 논란.. 안무 바뀔까”. **국민일보**. <<https://v.daum.net/v/20210520085052214>, 2022. 10. 01.>.
- 정옥희(2022. 10. 25.).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립발레단 운영강화 방안. **국립발레단 창단 60주년 기념포럼 자료집**, 24-43.
- 취리히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opernhaus.ch/en/>, 2022. 10. 01.>.
- 캐나다국립발레단 홈페이지 <<https://national.ballet.ca/Homepage>, 2022. 10. 01.>.
- 파리오페라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operadeparis.fr/en>, 2022. 10. 0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사례집.
- 호주발레단 홈페이지 <<https://australianballet.com.au>, 2022. 10. 01.>.
- Agence France-Presse in Paris(2021, February 8). New culture war erupts over Paris Opera diversity push. **The Guardian**. <<https://url.kr/jhgf2>, 2022. 10. 01.>.
- American Ballet Theatre(2020, November 16). American Ballet Theatre Presents ABT Today: The Future

- Starts Now Monday, November 23, 2020 at 7 P.M. EST on ABT’s YouTube Channel. <<https://www.abt.org/abt-presents-abt-today-the-future-starts-now/>, 2022. 10. 01.>.
- Bamford, Anne and Michael Wimmer(2012, January). *Audience building and the future Creative Europe Programme*. European Expert Network on Culture. <<https://zrr.kr/DiLL>, 2022. 10. 01.>.
- Cappelle, L.(2022, April 13). “Bringing Consent to Ballet, One Intimacy Workshop at a Time”. *The New York Times*. <<https://url.kr/pbkyoa>, 2022. 10. 01.>.
- Hernández, X. C.(2022, September 7) “Raises and Safety Protections in City Ballet Dancers’ New Contract”. *The New York Times*. <<https://url.kr/1lzd65>, 2022. 10. 01.>.
- Howard, Theresa Ruth(2020, October 29). “Is Classical Ballet Ready to Embrace Flesh-Tone Tights?”. *Dance Magazine*. <<https://www.dancemagazine.com/ballet-flesh-tone-tights>, 2022. 10. 01.>.
- Elzas, Sarah (2021, February 10). “Paris Opera vows to address lack of diversity, ban blackface on stage”. *RFI*. <<https://zrr.kr/t8lA>, 2022. 10. 01.>.
- Marshall, A.(2021, February 8). “Paris Opera to Act on Racist Stereotypes in Ballet”. *The New York Times*. <<https://url.kr/urnko1>, 2022. 10. 01.>.
- Netflix(2021). *Netflix Inclusion Report 2021*. <<https://url.kr/7j2gi6>, 2022. 10. 01.>.
- Pap Ndiaye Constance Rivière(2021, Janvier). *Rapport Sur La Diversité à l’Opéra National de Paris*. L’Opéra national de paris.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in Dance(2018, September 20). Announcing the Equity Project: Increasing the Presence of Blacks in Ballet. <<https://www.iabdassociation.org/page/EquityProject>, 2022. 10. 01.>.

논문투고일 2022. 11. 04.
 심사일 2022. 11. 24.
 심사완료일 2022. 12. 10.

Abstract

The Social Turn of Contemporary Ballet Companies in the West

Jeong, Ok Hee

Visiti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Art critic Claire Bishop(2006) characterized the social turn in the art field as a shift toward emphasizing process over product, and the fusion of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This paper argues that contemporary ballet companies have undergone the social turn, focusing specifically on their political emphasi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re values of nine major ballet companies in the West, this study identifies five core values: artistry,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education, access, and legacy. These companies prioritize education and research as much as performance, and view political and ethical values as crucial to their survival.

Contemporary Western ballet companies aim to gain legitimacy as socially valuable institutions by challenging their history of privilege and discrimination, and actively embracing diversity and community engagement in order to remain relevant.

Keywords: Ballet Company(발레단), Social Turn(사회적 전환), Diversity(다양성), Inclusion(포용성), Social Legitimacy(사회적 정당성)